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례 10:15 오전 9:16 행 1:8
2025년 주님의교회 표어



501
2025.6.15.

오늘의 말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 8:11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
| 2 | 하나님의 선교 특집 | 6 | 정신청소년포럼 / 노래선교단 | 9 | 사랑나무 수련회 | 14 | 교사일기 / 피택자교육 |
| 3 | 유아숲 여성성경학교 | 7 | 청년부 체육대회 / 봉사활동 | 10-11 | 싹남나무 제주순례여행 | 15 | 십자말씀이 |
| 4-5 | 1교구 삼행시 | 7 | 구호헌금 | 12 | 호스피스 | 16 | 장수사진촬영 |
| 6 | 어와나올림픽 | 8 | 꿈꾸는3막 / 산상수훈 | 13 | 다누리센터 간증 | 16 | 1교구 봄나들이 |



기쁨과 사랑이 샘솟는 곳

주님의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한 정신학원의 신축 체육관이 완공되어, 6월 1일부터 유아부와 유치부가 신축 체육관으로 부서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넓고 밝은 공간에서 유아숲 아이들을 환대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유아숲 표어에서 '기쁨'(Joy)을 담아온 이유는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인 유아숲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유아숲 아이들과 선생님, 모든 가정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깊고도 풍성한 사랑이 날마다 샘솟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선교적 가정의 사명(복음을 전하는 가정)(마가복음 16장 15절)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화목한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명확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실천은 가정이라는 삶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 중 하나는, 믿음과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이웃과 열방으로 확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가정은 단지 정서적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선교적 기지(Missional Base)**입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단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삶으로 증거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적 가정의 정체성과 의미

가정은 복음의 첫 현장입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본을 보고 배웁니다. 선교적 가정은 자녀가 단지 신앙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가정은 복음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선교적 가정은 예배 공동체일 뿐 아니라 복음의 실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복음의 실제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이웃과 친구, 친척이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가정이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 영향력은 지역 사회, 학교, 직장, 교회, 나아가 열방까지 퍼져나갑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가 이웃의 변화를 낳고, 자녀의 한 마디가 친구를 교회로 이끄는 등, 복음은 다양한 통로로 확장됩니다.

선교적 가정이 되기 위한 실천 방안

가정 예배를 통해 복음의 중심을 세우기

정기적인 가정 예배는 선교적 가정의 심장입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은 가정의 중심을 복음 위에 세우는 실천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찬양과 간단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고, 자녀가 성장하면서는 선교를 주제로 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세계를 품는 시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전도를 자연스럽게 생활화하기

선교적 가정은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웃을 초대하거나, 자녀가 친구에게 교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는 삶이다”라는 관점으로, 가족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동참하기

비록 모든 가정이 직접 해외로 선교를 떠날 수는 없어도, 기도와 후원을 통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를 함께 읽고 기도하거나, 선교 헌금을 모아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등의 실천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선교적 문화 만들기

가정에서 다문화 음식 체험을 하며 특정 국가를 소개하거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선교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와 함께, 뉴스 속 세계 문제를 함께 나누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적 삶을 몸에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가정,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가정의 거실에서, 식탁에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작은 선교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현실이 됩니다.

선교적 가정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작지만 소중한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교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진원 인수집사 / 함글함글



유아숲
2025 여름성경학교

유아숲 친구들! 모세와 함께 떠나요!

2025년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모세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새기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유아숲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신축 체육관으로 이전한 유치부서실(농구장)에서 유아숲 연합 가족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에 속한 많은 친구들

과 가정이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친구들이 잊지 못할, 연극 / 찬양축제 / 대그룹 활동 / 축복의 시간 / 신앙교육교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아숲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배우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유아숲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총괄

2025유아숲 여름성경학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모세편-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13:21)

7.13 주일 10:30-13:00 유치부실

찬양-연극-대그룹활동-축복의 시간

유아숲
pclkids.co.kr

■ 2025 성경학교 일정

7/13 주일		
10:00-10:30	교사경건회 및 준비	유치부실 / 교사전체
10:30-11:00	유아숲 가정 맞이 [사전활동] 구름기둥 불기둥 부채 만들기	신축체육관 1층 로비 [활동]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아빠와 만들기 활동을 해요
11:10-11:30	찬양의 시간 성경학교 찬양 이어듣기 ▶	찬양팀 (박지영 박혜인 서세아 안정현 우지민 교사)
11:30-11:35	기도/오프닝	최성이 장로 / 이윤경 목사
11:35-12:10	연극 (이야기 영역-말씀듣기) 대그룹 활동 (음률 놀이)	연극팀 (허소정, 송준연, 김예경, 조규원, 설연우 교사)
12:10-12:15	축복의 시간 (축복송, 기도) 광고	찬양팀 / 김학수 담임목사님 (김성일 교사)
12:15-12:45	점심식사 (가정별) 포토존 이용 (가정별)	아기부 / 영아부 - 유아부실 유아부 / 유치부 - 유치부실 포토존 - 로비
12:45-13:15	귀가/정리	교사전체

■ 성경학교 (7월) 말씀송

▶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모세편-

함께 기도해요

■ 성경학교를 앞두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1 성경학교에 많은 친구들과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온 가족이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도록
- 3 성경학교를 통해 유아숲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13:21-22)

- 4 날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라가는 유아숲 친구들이 되기를
- 5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모든 가정의 삶이 되기를
- 6 유아숲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 7 유아숲 선생님들의 건강과 일상을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의 시간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 8 안전하고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 9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성경학교를 위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2025년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모세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새기며,

1)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2)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유아숲 성경학교 (가족)예배를 위해 교역자-교사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연극/찬양축제/대그룹활동/스토리북을 기대하며 남은 시간 동안, 참여할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 홍보영상

모세 스토리북

성경학교 찬양 이어듣기

성경학교 홍보영상

1교구
삼행시

시.니.어., 세 글자에 담긴 인생의 지혜

시온성같은 최고의 우리 교회에! / 니고데모같은 믿음 좋은 우리들이!
/ 어린 양처럼 즐겁게 모였습니다.

시니어 그룹 모임이 시시한 줄 알았습니다 / 니나노인 줄 알았습니다 /
어 그런데 은혜가 넘치네

시험을 당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해요 / 니는 나를 위하여 나는 니를 위
하여 /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요.

시간은 제한속도 없이 마구 달리네 / 니봉달고 머리 묶던 시절 어디갔
나 / 어느새 백발에 시니어라니 인생무상이구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할렐루야

시시때때로 나를 도우신 주님 / 이(니: 두음법칙)곳까지 나를 이끄신
주님 / 어찌 의심하리요 영원토록 나를 안위할 주님!!

시작은 미약하나 / 니가 주께 지혜를 간구하면 / 어려운 일도 도와주
십니다

시절이 지나도 여전한 그 미소 / 니가 걸어온 지혜가 묻어 있고 / 어와
둥둥 지혜로운 어른이 돼라!

시나브로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 니가 떠나가던 그 날을 생각한다 / 어
설뻔던 그 젊은 날 꽃향기로 남아 있다

시간이 흘러흘러 어느덧 내년이면 70세 / 니가 잘난 일생이냐? 내가 잘
난 일생이냐? 살아온 세월 / 어떻게 남은 일생을 보내? 시니어 교구에
서 보내야지

시어머니께 어버이날에 / 니트웨어를 선물했더니 / 어화둥둥 어린 아
이처럼 춤추시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 니 영혼이 때를 따라 / 어디서나 언제나 푸
르를 것이야

시온성과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교회에서 / 니나, 내나, 서로 사랑하면
서 / 어려운 일 당할 때나, 슬플 때 내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시절 인연으로 1-17교구로 만나는 은혜를 주셨으니 / 니가 뭐냐? 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 어,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맘으로 품어주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 니가 돌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심같
이 항상 너를 돌보시거늘 / 어찌하여 너는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지 아
니하느냐

시시때때로 / 니나 나나 /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감사하고 주님만 소망
하면서 걸어갑시다

시니어들이여 / 니카타로 스키타러 갈까요 / 어디서든지 주님이 손잡
아 주실테니까

시작된 구역예배 열심히 참석하여 은혜받고 / 니나노 노래 부르며 서
로 손잡고 춤추며 / 어느 누구든지 친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개울물처럼 주님 사랑이 흐르는 곳 / 니가 아닌 내가 손
내밀어 함께 가는 곳 / 언제나 그제나 먼저 다가가 손잡고 하나가 되는 것

시니어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 따라 / 니느웨로 기꺼이 들어가야지 /
어찌 발길을 돌리겠는가

시골 사람이 / 니말 듣고 / 어디로 가나 했더니 교회로 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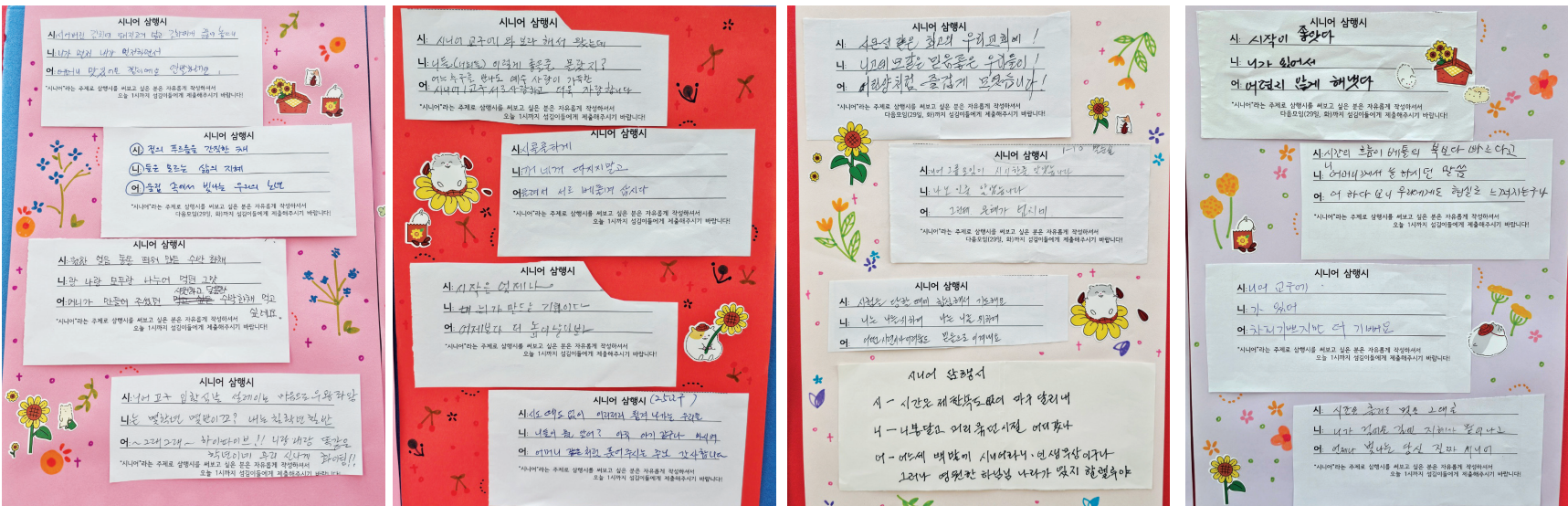
시온성으로 / 니캉 내캉 / 어울려 은혜받을 곳으로 가자.

시니어가 되니 참 좋다 / 니들은 모를꺼다 젊은이들아 / 어떻게 살았던
지 지금이 최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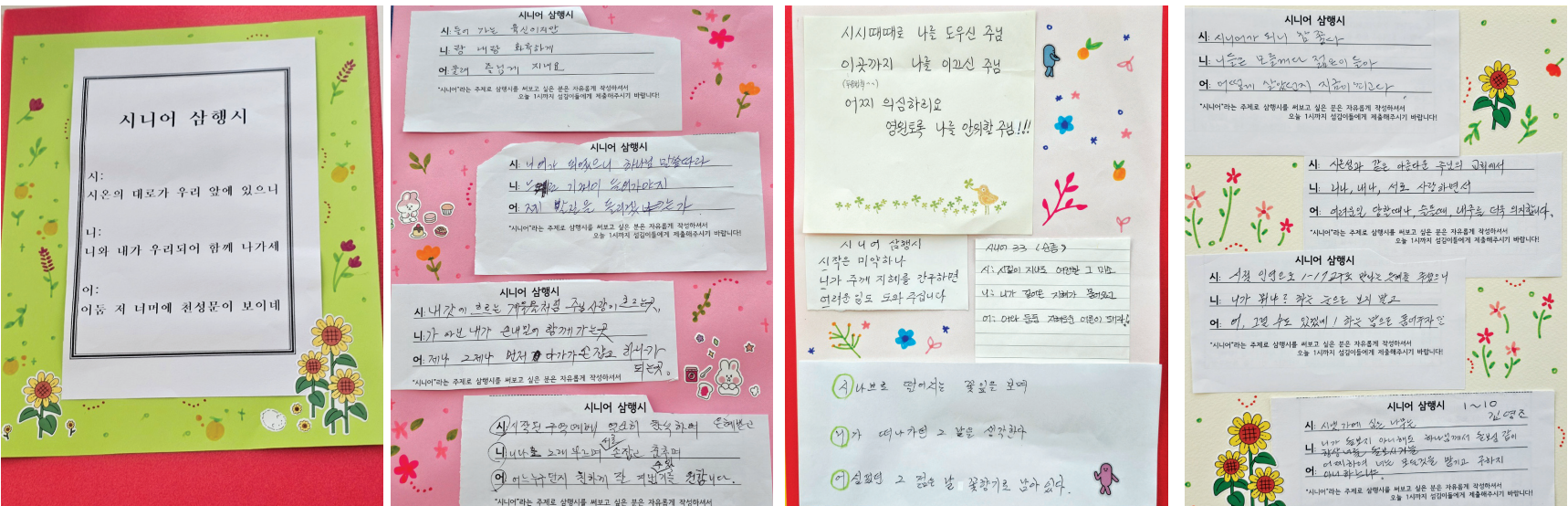
시덥지 않은 말로 / 니를 정죄하고 단죄한 죄를 험한 것은 / 어리석음
을 용서하길 바랄게

시절의 푸르름을 간직한 채 / 니들은 모르는 삶의 지혜 / 어울림 속에
서 빛나는 우리의 노년

시어버린 김치에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여 놓으니 / 니가 먼저 내
가 먼저 하면서 / 어머니 맛있어요. 짬이예요. 연발하네요.



시간없다 징징대지 말아라 / 니들이 주님의 뜻을 아느냐 / 어차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라.	시간을 늘 아끼며 기도하며 / 니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해 /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해.
시절이 지나도 여전한 그 미소 / 니가 걸어온 지혜가 묻어 있고 / 어와 동등 지혜로운 어른이 돼라!	시냇물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 니취(niche, 벽감)에 놓인 성경, 언제나 마음의 등불! / 어버이의 높고 깊은 사랑, 어이 헤아릴 수 있으리요.
시니어 교구에 와 보라 해서 왔는데 / 니들(너희들) 이렇게 좋을 줄 몰랐지? / 어느 누구를 만나도 예수 사랑이 가득한 시니어 1교구 서로 사랑하고 더욱 자랑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 니 마음 속 열정은 / 어제보다 더 뜨겁다.
시시콜콜하게 / 니꺼 네꺼 따지지 말고 / 어울려서 서로 베풀며 삽시다.	시간은 자꾸 자꾸 흘러가는데 / 니가 젊네 내가 젊네 하지 말고 / 어제 처럼만 이대로 건강히 살면 좋겠네.
시작은 언제나 / 니가 만드는 기회이다 / 어제보다 더 높이 날아봐.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 니 일 내 일 나누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리 저리 튕겨 나가는 우리를 / 니들이 뭘 알어? 아직 아기 같구나 하시며 / 어머니처럼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끄는 경험의 파노라마 / 니가 걸어온 길은 모수의 길 /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나아가자.
시간이 되어서 / 니들이 만나니 / 어찌나 은혜로운지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미소 / 니가 있어 더욱 빛나는 세상 / 어른의 따뜻한 품에 모두가 쉬어가네.
시름안고 교회 왔다가 / 니랑 나랑 중보기도로 / 어느새 미소안고 집에 가네.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있으니 / 니와 내가 우리 되어 함께 나가세 / 어둠 저 너머에 천성문이 보이네
시간을 넘어 만남을 갖고 / 니가 함께 있어 우리는 행복해 / 어깨를 펴고 같이 만나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을 / 니 손에 가득 담아 전해주시는 그 분 / 어제의 절망을 오늘의 희망으로 바꾸셨네
시원한 바람 부는데 / 니와 내가 함께 /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자.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 니 고집대로 하는 구나 탄식하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예수님 / 어여뵈 여기사 성령님 동행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이 좋았다 / 니가 있어서 / 어렵지 않게 해냈다.	시니어 교구 입학식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왕좌왕 / 니는 몇 학년 몇 반이고? 내는 칠학년 칠반 / 어~ 그래그래~ 하이파이브!! 니랑 내랑 똑같은 학년이네!! 우리 신나게 파이팅!
시간의 흐름이 벼들의 복보다 빠르다고 / 니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 / 어 하다보니 우리에게도 현실로 느껴지는구나.	시원한 얼음 동동 띄워 만든 수박 화채 / 니랑 내랑 모두랑 나누어 먹던 그 맛 /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화채 먹고 싶네요.
시니어 교구에 / 니가 있어 / 어차피 기쁘지만 더 기뻐요.	
시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울림 더울림 살다보니 벌써 종착역 / 니들이 어떻게 살아왔나요? /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보면 살아진다.	



어와나
2025 어와나 올림픽

믿음의 세대, 믿음의 경주

2025년 5월 17일(토)에 인천남동체육관에서 ‘2025 수도권 어와나 올림픽’이 열렸다. 어와나 올림픽은 자신의 클럽과 교회의 명예를 걸고 참여하는 열정적인 어와나 게임대회이다. 어와나의 40여 가지의 게임 중 10가지 종목을 선정하여 교회의 대표선수가 되어 전국에 있는 클럽원들과 경기를 한다.



수도권 122개 교회, 약 7,000명이 함께한 ‘수도권 어와나 올림픽’에 참여한 주님의교회 어와나 스팅스(7~9세)는 두 팀 총 22명(1학년 15명, 2학년 7명)이 참가하여 동메달을 땀고, 티앤티(초3~초6)는 3개 팀(남자팀, 남녀혼합팀, 여자팀)이 출전하여 금, 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좋은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어와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함글함글



청소년사역원
정신청소년포럼

생성형 AI시대, 청소년과 함께한 통찰의 시간

지난 5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제15회 정신 청소년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생성형 AI시대’를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의 오장민 교수가 강연을 맡아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정신여고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신여고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주님의교회 성도,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제공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가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

육의 장으로 기능했다. 정신여고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은 앞으로도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함글함글



청소년숲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초청예배

노래로 복음을 전하다

지난 5월 25일(주일) 오전 9시,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는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다. 정신여자고등학교 노래선교단이 청소년숲 초청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는 학생 26명과 지휘자 선생님 3명, 교감 선생님, 교목 목사님 등 총 31명의 선교단이 함께했다.

예배에는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원들의 가족과 학부모, 주님의교회 장로, 학원선교부의 집사 및 권사 등도 함께 참여했다. 노래선교단은 섬세한 하모니와 진심 어린 찬양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한층 깊이 있게 이끌며,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감동과 도전을 동시에 선사했다.

이번 초청예배는 노래선교단의 2024년 순회선교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앞으로 이들은 서울 근교의 학교와 교회, 그리고 제주 지역까지 이어지는 순회공연을 통해 7월 13일(주일)까지 찬양 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연을 통해 단원들은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며, 청소년 세대에 신앙의 감동을 심고 있다.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은 앞으로도 믿음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예정이다.

함글함글



청년부
체육대회

기다림의 끝, 청년들의 열정이 피어나다

지난 5월 18일(주일), 주님의교회 청년부가 무려 10여 년 만에 체육대회를 열어 청년 공동체의 뜨거운 열정을 한껏 발산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최근 2~3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년들의 요청 속에서 준비된 행사로,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만큼 120여 명의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기쁨과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맑고 따뜻한 날씨 아래 진행된 체육대회는 임원단의 기획으로 다채로운 종목이 펼쳐졌다. 공 굴리기, 파도타기, 줄다리기, 피구, 2인 3각, 이어달리기 등 전통적인 경기들에 청년들의 환호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응원도 경기 못지않은 열기를 자랑하며 현장을 더욱 활기치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는 청년들뿐 아니라 부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너나들이’청년들까지 함께하며 세대 간의 교제를 나누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연령층이 한마음으로 땀 흘리고 응원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을 넘어, 청년부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주님의교회 청년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만남과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함께함**

청년부
사랑쉼터의집
봉사활동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지난 5월 17일(토)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주님의교회 청년부 사랑나눔팀과 청년 24명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사랑쉼터의집’을 찾아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함께한 쉼터 가족은 총 20명으로, 총 44명이 주 안에서 한 식구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랑쉼터의집은 약 20명의 장애인 가족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한 목사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작은 공동체다. 이번 방문은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청년들은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진심 어린 관계 맺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쉼터를 찾았다.

청년부 사랑나눔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동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준비했다. 행사 준비는 한 달 전인 4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사랑나눔팀은 기획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 예산 편성, 일정 수립, 봉사 내용 구상에 힘썼고, 청년부 예배 광고와 임원회의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봉사 직전에는 참여 청년들과 사전

모임을 통해 봉사 내용을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봉사에서는 요리팀(7명)과 산책팀(17명)으로 나뉘어 사역이 진행되었다. 산책팀은 쉼터 가족들과 함께 인근 공원을 산책하며 교제를 나누었고, 요리팀은 제육볶음, 야채소시지볶음, 계란국과 밀반찬 등 쉼터 가족들의 입맛에 맞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식사 전후에는 간단한 마사지와 생일파티도 함께 진행되며 쉼터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다. 참여한 청년들은 “봉사하러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채워진 시간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쉼터 가족들의 순수한 믿음과 목사님의 헌신적인 삶은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도전이 되었다. 주님의교회 청년부 사랑나눔팀은 앞으로도 지역과 사회의 그늘진 이웃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봉사하는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함께함**

산불피해교회
구호 헌금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실천

주님의교회는 최근 발생한 경안노회 지역 산불과 미얀마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총 2억 1,000만 원의 구호헌금을 전달하였다. 먼저, 경북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안노회 소속 9개 교회를 돕기 위해 총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국내선교분과위원회가 주도하여 평남노회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도농사회처에 전달되었으며,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하화교회에는 1억 원, 신덕교회, 하국곡교회, 임하교회, 구계교회, 일직교회, 금곡교회, 사랑의교회, 원동교회 등 8개 교회에는 각각 1천만 원씩이 전달되었다. 주님의교회는 이를 통해 피해 교회들이 조속히 회복되어 지역 내 예배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한편, 해외선교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대지진으로 막대

한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위해 구호헌금 3,000만 원을 국제 선교 단체 인터서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지진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재난으로, 최소 5,350명이 사망하고 530명 이상이 실종되는 참사를 불러왔다. 지진의 위력은 원자폭탄 334개와 맞먹는 규모로 알려져 세계인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주님의교회는 국내외 재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사명 아래 물질과 기도로 이웃을 섬기고 있으며, 이번 지원도 그러한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의 손을 내밀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고 있다. **함께함**

꿈꾸는 3막
종강예배

꿈꾸는 3막, 소멸이 아닌 사명을 발견하다

꿈꾸는 3막은 노년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가는 신앙교육과정입니다. 이번 3기 1학기 교육과정은 “6DNA” 라는 큰 그림 아래, 비전·영성·지성·관계·영향력·건강의 여섯 가지 주제로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8주간 진행되었습니다. 35명의 참가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김은선 목사님과 11명의 리더, 6명의 스텝과 함께 ‘인생의 3막’ 을 새롭게 꿈꾸며 의미 있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르던 이름이 프로그램의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서로 손을 맞잡고 상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하여 노년은 소멸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시기임을 함께 확인하는 복된 여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반기는 9월 11일 개강하여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6가지 DNA 중 첫 번째 주제인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심화과정을 공부합니다. 앞으로도 꿈꾸는 3막을 통하여 노년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리더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황정매 권사님의 종강 기도문을 나누며 글을 맺습니다.

박준범 목사

주님, 꿈3막 1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인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름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젊음도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는 겨울의 문턱에 왔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니 불편해지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기를 간구합니다! “비전, 영성, 지성, 영향력, 관계”를 훈련하여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꿈3막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과 주신 달란트로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훈련하여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풍성하게 나누며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노년이길 바라며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한걸음 뒤에 머물며 말의 실수를 줄이는 침묵을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 교회 나라와 열방을 중보하는 우리의 노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정매 권사 / 꿈꾸는3막



산상수훈

자연 속에서 마주한 은혜의 풍경

5월 17일, ‘산상수훈’은 3주년을 맞아 조금은 특별한 길을 떠났습니다. 87명의 교우들이 두 대의 버스를 나누어 타고, 철원과 포천의 경이로운 자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세계지질자원공원. 수천만 년의 시간을 견뎌온 대지의 비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3.6km의 잔도 위를 걸으며, 우리는 발 아래 흐르는 한탄강의 물빛과 바위결을 따라 걸었습니다. 잔도길 끝자락에 몇 개의 계단이 우리를 맞아 힘들게 했지만 함께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철원의 명물, 한우 불고기. 무한 리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교우들의 식탁엔 기쁨과 나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후 일정, Y자형 출렁다리는 하늘과 맞닿은 듯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를 맞이했고, 그 끝에서 마주한 전망대는 한탄강의 장엄한 전경을 선물처럼 안겨주었습니다.

용암이 서서히 흘러 형성된 한탄강 유역은 화산의 격렬함이 아닌, 인내와 시간의 예술이었습니다. 그 아래 화강암이 버텨준 땅은 벼농사마저 품어내는 너그러움을 지녔고, 철원의 명품 오대쌀은 그 결실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둘기날 폭포의 낭만적인 풍경은 우리의 하루를 정점으로 이끌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침, 우리가 버스에 오른 순간, 하늘은 기다렸다는 듯 봄비를 조용히 내려주었습니다. 온종일 비를 참아준 하늘의 배려에, ‘산상수훈’은 곳은 날씨가 비켜간다는 전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짧지 않은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교회로 돌아온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3년, 산상수훈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 공동체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나눠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삶 곳곳에, 그리고 열방 위에 아름답게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이신형 안수집사



사랑나무
수련회

아름다운 소리가 된, 사랑으로 함께 한 시간들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것 같습니다. 사랑나무 가족이 수련회를 떠나는 날은 어찌 하나님께서 햇빛도 더 뽕뽕 쏘아주시는 것 같고, 바람도 27도 정도로 기분 좋게 세팅해 주신 것 같으니 말입니다. 바삭바삭한 햇볕에 하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잔뜩 설렌 우리를 보고, 하늘도 바람도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나무는 매 주일이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였지만, 특별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욱 충만한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사랑나무 가족들을 생각하며 만들어주신 영양 가득한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도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중에서도 함께 어울려 뛰어놀았던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사랑나무 가족들의 함박웃음을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각역 보신각종의 원본은 금이 가고 깨져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이 간 종에서는 흥한 소리가 날 것 같지만, 깨어진 종의 파편 하나하나가 제각기 종의 역할을 해서 더욱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에 누군가는 깨어진 종이라 할지 몰라도,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랑나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흥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최정은 교사



안녕하세요, 사랑나무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재익 입니다. 사랑나무는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직은 새내기 선생님입니다. 사랑나무 수련회 소식을 들었을 때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학생들과 하루 종일 있어 보는 것은 처음이라 제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기뻐하는 것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느껴졌고 예배와 어울림을 통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랑나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학생들에게 하는 작은 봉사보다 항상 더 큰 기쁨을 아이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 일주일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행운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긴 시간동안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러한 배움들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내년 수련회가 기다려집니다. 총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랑나무 친구들 사랑합니다! 이재익 교사



5월 푸르름이 가득한 강원도에 박장로님께서 초대해주셔서 사랑나무 가족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기쁘고 좋은 날!

바람냄새, 꽃향기 가득한 곳에서 반갑게 맞아주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직원분들.. 우리 사랑나무 친구들이 맛난 식사로 손가락 던져버리고 손으로 허겁지겁 먹어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저 맛있게 많이 먹으라고 부끄러움을 뒤로 숨겨주시고, 의미없는 소리를 내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안쓰러운 눈빛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며 이해하려는 따뜻한 눈빛으로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주시던 가슴 찡한 시간들.

식이조절 때문에 음식 가리는 친구를 위해 배려해주신 뽕얀국물 순두부찌개 한 그릇. 찢한 사랑에 감동 또 감동을 안겨주셨던 식사시간.

그리고 수련회 하면 생각이 나는 찬양 한 곡이 있네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권목사님 울동 따라서 주일학교 학생이 된 것처럼 까르르 신나게 숨차게 불렀던 찬양 시간.

5월의 수련회는 사랑나무 가족들 모두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리고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을 한 아름 가슴에 안고 돌아왔던 아름다운 시간이었네요. 남진희 교사



식딤나무
제주순례여행

천국처럼 아름다운 우리들의 제주 순례 여행

2025년 식딤나무 제주 순례 여행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짧게나마 글로 적어 은혜를 나눕니다. 온 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국내 제주 순례 여행을 허락하시고 무사히 여행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정된 10시 출발이 12시 이후로 변경되어 공항 집결 시간이 10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상황 역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시면서 동시에 여유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제주도 방문 첫 일정으로 제주극동방송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제주극동방송은 광범위한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주도는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 선교를 위한 방송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 전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서도 제주극동방송을 통한 복음 접근 및 신앙 회복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극동방송 견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첫날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신화월드 리조트 숙소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튿날, 우도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도는 소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아름다운 경관(동관이 아님)을 감상하며 섬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해녀의 부엌' 공연 관람 후 현장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공연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해녀들의 강인한 삶과 독특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 날에는 신화월드 내 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하이파이브'를 관람했습니다. 소규모 상영관이었기에 식딤나무 식구들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제주도 순례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여행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가니 정말 가치 있는 제주 순례 여행이 되었습니다.

김동관 안수집사



제주도의 햇살과 바람, 바다의 냄새와 풍경에 그냥 취해 버렸습니다. 함께 한 식딤나무 가족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계속해서 감동하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값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김혜영 집사



이제까지 머리로만 생각하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보면서 문득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하게나마 주님을 모시게 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가슴에 모셔드린 주님을 조금씩 더 큰 존재로 성장시켜 나가려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이 온전히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마음을 굳게 갖게 되었습니다.

한명규 집사



우리가 갔던 제주의 하늘은 삼 일 내내 어찌나 청명하던지 스치는 공기는 마치 주님의 손길 같았습니다. 스케줄 하나 하나, 식사며 숙소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정성껏 준비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숙소는 처음 경험하는 장애인 전용 숙소였는데, 턱이 없는 내부에 넓은 공간이 휠체어를 배려한 곳이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무리없이 회전되는 것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 휠체어를 굴러 가며 '좋다, 너무 좋다'를 연발하였습니다. 남편 한집사의 건강이 걱정되어 먼 여행에 살짝 우려도 되었지만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날 밤, 새벽이 밝아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었다고 했습니다. 신비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계획을 해주신 교회와 두 분 목사님, 봉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다정한 우리 식딤나무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순례 여행을 다니는 동안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노수연 권사



2년 전 장애인 사역부에서 다녀온 제주 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5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향하는 설렘 가득한 우리들의 성지 순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가슴은 두근두근 떨렸고,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는 구름 위의 모습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이륙할 때의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치는 느낌은 답답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들이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하늘 위로 솟구치는 듯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제주 공항에서 도착하여 나오는 순간 제주의 눈부신 햇살과 상쾌한 공기는 우리를 반갑게 마중 나와 주신 예수님의 환한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싯딤나무 식구들은 이런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웃고 즐기며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제주하면 꼭 가고 싶은, 제주의 오른쪽 끝에 자리한 또 다른 제주의 작은 섬 우도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성산항 배에 휠체어와 탑승하여 우도를 향해 푸른 바다의 물결을 가로질러 도착했습니다. 제주의 우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흰 모래가 어우러져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을 빚어냈고 우도의 사랑스러운 풍경에 한명규 집사님은 휠체어를 달리며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파도 소리 선율에 맞추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꼭 맛보고 싶었던 우도 땅콩, 한라봉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고소하고 상큼한 아이스크림의 맛에 행복을 가득 안고 휠체어를 달렸습니다. 그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신 배운환, 김은선 두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역시 젊음이 아름다워 보였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장애인 사역에 앞서 열정과 헌신으로 장벽 없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나누고 소통해 주는 목사님들이 어디에 또 계실 수 있으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동행해 주신 김용규 장로님과 탁동원 부장님, 최금주, 이민자, 노수연 권사님, 김훈, 한재희 집사님은 모든 식구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섬김의 자리를 자처했고,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이 울려 퍼지는 따스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찬양이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미소 지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천국처럼 아름다운 제주 여행은 모든 분들과 함께라서 더욱 소중하고 행복이 넘치는 성지 순례 여행이었습니다. 장애인 제주 여행을 위해 기도해주신 교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희 집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5월 29일~31일, 2박 3일 일정으로 배운환 목사님, 김은선 목사님의 인솔하에 싯딤나무 가족들이 화창한 날씨 가운데 제주도 순례길에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제주극동방송국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으며 민간방송 최대출력으로 송출하는데 시간별로 동, 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지향성 안테나를 통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동북아 18억 가칭 인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북한에서 극동

방송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받고, 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라디오를 보내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들은 말씀을 적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을 전해주시라는 부탁이 담겨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혹시라도 정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었고, 약속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서 대하는 복을 누리지만 감사를 모르고,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성경책 한 권 갖기를 소원하는 북한의 성도들과는 달리 주일에도 성경책이 없어도 예배가 가능한 편리한 예배 환경에 익숙해진 예배드림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일상으로 듣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예배자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순교를 각오하며 선교하는 사역지가 있고, 순교를 각오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있어 신변의 위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북녘땅에도 결국은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이 선명히 보이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둘째 날에는 우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니 싯딤나무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겠다 싶습니다. ‘동행’이라는 뜻을 담고 천천히 함께하는 지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아도 손잡고 걸지 않아도 ‘함께’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녀의 부엌’이라는 곳에서 바다에서 채취한 것들로 식사가 준비되어 싯딤나무 가족들에게 즐거움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가장의 노릇을 해야 하는 한 소녀가 노년에 이르도록 해녀로 살아야 했던 한 많은 세월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주도에 여자가 많은 이유는 나라의 시대적 아픔이 깃들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이 없어야겠고, 자유대한민국이 안보를 튼튼히 하여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후대에도 지켜나가는 나라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싯딤나무 가족들이 한순간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일상이 불편하지만 용기 있고,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라고 여기며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주님 안에서 두 분의 목사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싯딤나무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금주 권사



호스피스팀
광명마리안나병원

광명 마리안나병원서 첫 봉사 시작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이 5월 12일(월), 광명 마리안나 병원에서 첫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상 수 40개를 넘는 이 호스피스 병원은 삶의 마지막 길을 걷는 환우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날 새벽, 14명의 봉사자들은 교회에 모여 배운환 목사님의 기도로 봉사의 문을 열어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목사님은 직접 운전으로 봉사팀을 인솔해주시며 섬김으로 동행해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봉사를 시작하기 전, 봉사자들은 마음을 모아 이사야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서로를 사랑의 띠로 엮어주셨습니다. 이날, 43명의 환우 중 봉사를 원하신 15분께 아로마 발 마사지를 통해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한 봉사자는 조용히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 작은 손길로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삶과 죽음 사이의 조용한 현장,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렀습니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봉사자들의 고백처럼, 이 섬김은 단지 선행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은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광명 마리안나 병원을 찾아 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살아 있는 날마다 주님 손에 이끌려 걷는 인생길, 그 걸음마다 사랑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신형섭 장로**



호스피스팀

웰다잉에 대한 단상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온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부족인 나바호족의 경구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또 세 가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니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혼자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당하는 죽음과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은 너무도 다릅니다. 흔히들 웰다잉을 이야기합니다. 웰다잉을 이야기하는 것은 웰빙, 웰에이징과 같은 잘 살기 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살다, 잘 죽다”는 앞서간 모든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삶에는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삶의 결말을 아름답게 맺기 위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대문호 톨스토이는 저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웰다잉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 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지만 이 고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를 잘한다면 죽음은 우리가 가야 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주님 계시는 본향을 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의미있는 삶, 품격있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축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요, 온갖 다툼을 가라앉히는 평화요, 죽음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러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진지하면서도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도록, 무거움 속에서도 희망과 미소가 함께 하는 단어로, 삶의 여정에 간이역이 되어 천국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곳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 26절

유원식 장로 / 샘물호스피스

기관선교부
신앙간증

슬픔을 딛고 피어난 사명: 다문화가정을 향한 마음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다문화선교를 하고 있는 김영인 사모입니다. 다문화선교를 하기 전에는 담임목회자의 아내로 25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이야기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청년시절 교회생활에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 자신 중심으로 나의 온갖 똑똑과 열정을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의 오만함 앞에 맞서게 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유창한 말만 했던 기도, 내 열심,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 비춰졌습니다. 그때 밤새워 울며 중심에서 몸부림치며 나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회개 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놀랍고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졌고, 하나님 말씀이 그때서야 믿어졌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세계관과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두 살려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후에 내게 주어진 놀라운 평안! 뱃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깊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의 남편을 두 목사님의 소개로 만나 담임목회 길을 갔습니다.

목회 내내 행복했습니다. 성도가 화를 내고, 빠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전혀 화나지 않았습다. “아 사랑받기 원하는구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에 열심히 선기던 중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 나라가 월드컵 축구경기로 들떠 있을 그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당시 13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주신 분이 데려가셨습니다. 큰 슬픔과 비통함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자 그 사실에 정직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내려놓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후로 담임 목회의 사역을 접고 그동안 후원하는 선교만 했는데, 직접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WMTC(세계선교훈련원)에서 합숙하며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베트남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52세였습니다. 현지 적응, 언어훈련 중에 10개월 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저에게는 큰 고통과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잘 적응하며 베트남 선교지를 두루 살피며 지냈습니다. 허리에서 시작한 고통은 다리까지 내려와 걷기가 어려웠고, 손가락에서 시작한 습진은 손바닥까지 파고들어 치료가 되지 않아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씻은 듯 없어져서 베트남 현지와 한국을 오가기를 여러 차례 급기야 교단 해외선교회 본부에서 풍토병으로 어려우니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1년여 동안 투병 생활 후 회복했습니다. 3년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보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주민들이 많아진다는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회복하면서 다문화 전문가, 한국어 교사 2급, 심리상담사 등을 편입하여 공부하며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13평 주공아파트에서 다문화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매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로 다문화가정 자매들이 재래시장에 다니니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베트남어로 이야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엠 어이”하며 불렀더니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로 불려

서 반가운 듯 환영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3명의 자매들과 아기를 가정집에서 시작한 다문화센터까지 데려오게 되며 다문화사역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과 가정상담, 생활문제 상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점점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구역을 나누게 되었고 그러던 중 한 자매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방문하여 장례 절차와 경찰서 조서와 시댁과의 재산 문제, 딸아이와 혼자 남게 된 자매의 법적 보호와 생활문제를 해결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매들 사이에 소문이 나며 센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 말씀! 나를 불쌍히 여기어 찾아오셨던 주님, 다문화가정 자매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자매들의 가정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어소통입니다. 언어는 생명입니다. 가족 내 의사소통의 장애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어머니가 주도하는 한국의 가정 형편상 다문화가정의 애로사항은 정말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소통해야 하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심각한 영향력을 받고 있어 또래 아이들과 언어 문제로 인한 소외감이나 왕따를 겪게 됩니다. 부부간의 소통, 시부모와의 소통, 자녀와의 소통이 다문화가정 자매들의 언어습득 문제에 어려움이 많고,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오해와 폭력, 따돌림, 무시로 인해 이혼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나 생활방식, 어떤 사건이나 가정 안에서의 상황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정들은 그래도 비교적 갈등이 적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져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다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자녀들이 잘 자라 주기를 위해 저희 다누리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사역에 대한 간증을 써야 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다음 이야기를 이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다문화가정은 물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까지 섬기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끝까지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인 사모 / 다누리센터



교사일기
유아부

따스한 하나님의 새싹인 싹트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유아부는 2021년, 2022년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작은 손을 맞잡고 교회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싹트는 새싹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성장의 과정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아부는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한 아이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사랑을 경험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영아부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는 매번 울음을 그치지 못했었으나, 어느덧 많이 익숙해져서 지금은 때로는 수줍어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하나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성장의 여정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따뜻한 품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예배의 기쁨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은솔 목사님과 조규완 전도사님께서 유아부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신 덕분에, 유아부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과 기도, 그

리고 세심한 배려가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새로 지어진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 다가오는 것이기에, 낯설고 어색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지만, 동시에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놀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큼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예배 공간에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사랑받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배의 기쁨이 싹트네에 가득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싹트네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송성욱 안수집사 / 유아부 부감

2025 향존직 피택자

섬김의 여정 가운데 진행 중인 피택자 교육

주님의교회는 지난 5월 24일(토)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향존직 피택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로 4명, 안수집사 14명, 권사 17명, 총 35명의 피택자가 함께하며, 6개 조로 나뉘어 예비된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피택자 명단(가나다순)

장로 고경임, 박석진, 신성철, 엄인호

안수집사 강정구, 김기홍, 김성규, 김종석, 김홍석, 도원중, 성낙훈, 안준, 오상훈, 정인혁, 최민기, 현정근, 홍승호, 황규의

권사 김주현, 박설리, 박성연, 송숙희, 안남희, 여윤정, 유은하, 유혜림, 이승란, 이인숙, 이주영, 이정금, 정혜정, 정희선, 천금미, 최종희, 황혜영

교육은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담임목사님의 강연과 주님과함께 묵상 나눔과 조별 나눔으로 이루어지며, 매일 큐티 나눔과 성경 읽기, 새벽기도회 참석, 그리고 신앙과 섬김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도서 8권의 독서와 독후감 작성을 병행합니다.

특히, 전년도 임직자들이 도우미로 섬기며 후배 직분자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고 있어,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택자 교육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임직식은 11월 23일(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준비하는 피택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최민기 집사 /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누가복음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세 번째 권인 <누가복음> 편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에 속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마가복음 편

	바	알	세	불		신	성	모	독
유	다		레			랑			
월			요	단	강		안	드	레
절		권	한		도	마		러	
	능	력				리		나	병
데		자	손		보	아	너	게	
나	라		가		화		히		바
리		다	락	방		이		세	리
온	전				나	사	렛		새
	도	무	지			야		의	인

가로 힌트

- 2.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에서의 동생이다. (눅 1:33)
- 4.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의 이름이다. (눅 4:25)
- 6. 이스라엘 남부 갈릴리에 있던 마을. 예수님의 고향이다. (눅 18:37)
- 7.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의 부인으로 동정녀로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 (눅 9:52)
- 9.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 (눅 4:15)
- 10. 아기를 덮고 싸는 용도로 만든 큰 보자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것으로 감쌌다. (눅 2:7)
- 11. 원래의 뜻이나 용도에 맞음. 목적에 합치되고 적절하다는 뜻이다. (눅 3:8)
- 12.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것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셨다. (눅 6:12)
- 14. 앞으로. 미래의 어떤 때에. (눅 8:17)
- 16.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눅 5:10)
- 18. 로마 황제의 칭호. '카에사르'를 음차한 표기이다. (눅 20:22)
- 20. 하나님의 천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 (눅 1:19)
- 22.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 같은 이름의 호수 서쪽에 있었다. (눅 2:39)
- 24. 예수님이 예로 든 거지. 부자와 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위로를 보여주셨다. (눅 16:20)
- 26.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은 사람. 아마도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눅 1:3)
- 27. 구약 시대의 선지자.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뜻이다. (눅 4:17)

세로 힌트

- 1. 신약 시대의 은전. 보통 일꾼들의 하루치 품삯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 (눅 7:41)
- 2. 에녹의 아버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다. (눅 3:37)
- 3. 참된 도리와 바른 이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의미한다. (눅 20:21)
- 5.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다. (눅 5:10)
- 7. 보통 집 앞에 두는 평평한 공간. 평상을 두거나 식량을 말리는 등 여러 용도로 쓰인다. (눅 3:17)
- 8. 자식 가운데 남성.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것이다. (눅 1:31)
- 9.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경 받는 장로들 가운데 선정되었으며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했다. (눅8:41)
- 10.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탈하는 도둑. 단순히 금품을 훔치는 도둑보다 죄의 정도가 높다. (눅 10:30)
- 12. 어떤 일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는 그 마감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눅 1:57)
- 13. 사람이 한 해를 지나면 하나씩 늘어나는 것. 설날 떡국을 먹으면 이것을 먹는다고 한다. (눅 2:36)
- 15.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야. (눅 14:10)
- 16. 마리아의 남편. 직업은 목수였다. (눅 1:27)
- 17. 신약 시대의 동전. 하찮은 가치를 가진 단위였다. (눅 12:6)
- 19.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와 대화하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받은 인물. (눅1:13)
- 21. 사가랴의 아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다. (눅 1:5)
- 22. 흔히 강가 습지에서 자라는 초본 식물. 바람에 잘 흔들린다. (눅 7:24)
- 23.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주로 힘든 일에 대해 이런 마음을 먹는다. (눅 22:33)
- 25.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직업.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선서로 남겼다. (눅 5:31)

사진부 장수사진촬영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순간

주님의교회 사진부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을 정성스럽게 진행했다. 이번 촬영은 5월 18일(주일)과 25일(주일) 양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지하 1층 첫 번째 청소년홀에서, 총 13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삶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장수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생의 여정을 축복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행사다. 사진부는 촬영뿐 아니라 개별 보정 작업까지 세심하게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파일은 카카오톡으로 전달, 인화 사진은 11x14인치(약 28x36cm) 크기로 인화하여 제공하였다. 주님의교회는 앞으로도 전 세대가 함께 웃고 기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의 비전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함글함글

1교구 봄나들이

감사로 물든 발걸음

2025년, 주님의교회 1교구가 시니어교구로 활기차게 한 해의 사역을 열었다. 3월 11일 개강 연합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6월 24일까지 총 14회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5월 20일에는 특별한 봄나들이 야외행사로 광릉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니어교구 성도와 스텝 등 총 235명이 함께했다. 오전까지 내린 비로 인해 우려가 있었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맑게 갠 하늘과 산들바람이 반겨주며 수목원 산책에 최적의 날씨를 선사했다. 참여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피톤치드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두 차례의 사전 답사를 포함해 체계적이고 원숙한 준비과정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스텝들의 세심한 헌신과 섬김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1교구는 현재 예배와 '겨자씨 모임',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4일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봄나들이를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진 교구 식구들은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

500호 퀴즈 정답

정답

1. <함글함글>이 창간호는 몇 년도에 발행되었나요? 1996년
2. 지금까지 발행된 <함글함글>에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로마서 12:15
3. 초기 <함글함글>의 발행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두 달
4. 1면에 있는 창간호 표지에 현재와 다르게 표기(오타, 띄어쓰기 등)된 것은 무엇인가요?
롬12:5 → 롬12:15, 주님의 교회 → 주님의교회 (띄어쓰기)
5. 십자말풀이는 몇 호부터 시작되었나요? 455호
6. <함글함글>의 발행인은 누구인가요? 김화수 담임목사

정답자(오답 1개까지)

최현진(소년부), 현병택 안수집사(2교구), 송성열 권사(2교구), 김해중 권사, 정상철 안수집사(7교구), 김희정 성도(8교구)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정

- 6/22(주일) : 창립기념주일 (37주년)
- 6/25(수) : 겨자씨 모임 1학기 종강
- 7/2(수) : 교구 연합 수요기도회(7교구)
- 7/5(토) : 어와나 1학기 종강

알립니다

1. 하나님의 선교 LAMS 과정
기간 : 4/16~6/18(매주 수) (5, 6월 첫주 제외)
2.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한사람) : 6/10(화) ~ 6/18(수)
필리핀(몬탈반) : 7/12(토) ~ 7/15(화)
필리핀(유성훈) : 7/23(수) ~ 7/28(월)
필리핀(몬탈반 - 청소년순) : 8/3(주일) ~ 8/7(목)
필리핀(송지형) 8/7(목) ~ 8/12(화)
키르기스스탄(윤바나바) : 9/23(화) ~ 9/30(화)
3. 청소년순 필리핀(몬탈반) 선교를 위한 후원행사
일시 : 6/22(주일) 오전 7:30 ~ 오후 3:30
장소 : 김마리아 회관 입구
품목 : 필리핀과자, 커피(드립백, 더치), 패션후르츠청, 굿즈
문의 : 방윤주 목사(010.3076.3021)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 주일 오후 12:00 ~ 2:00
문의 : 서정하 장로(010.9554.9715)
2. 시온(2부) 찬양대원 모집
파트 : 테너
문의 : 김형준 집사(010.5132.4909)
3. 주차안내부원
시간 : 1부(2명), 2부(3명), 3부(3명)
문의 :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